

보도자료

2010년 12월 22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통신융합정책실 편성평가정책과 권병욱 과장(☎750-2350)
편성평가정책과 김성욱 서기관(☎750-2356)

「201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계획 확정

- 응모작품 및 추천서 접수 : '11. 1. 3(월)~1. 12(수) -
- 시상식 : '11. 3. 7(월) 10:30,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2일 『201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계획을 확정·발표했다.

「201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은 방송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한 해 동안 방송된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 작품을 선정·시상하는 행사로, 내년 3월 7일 오전 10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며, 大賞 1편, 우수상 6개(창의 발전·사회 문화·지역 발전·뉴미디어·시청자 제작·라디오) 부문 12편과 특별상 3개(공로상, 바른 방송언어상, 방송기술상)부문에 대하여 시상하게 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세 번째로 개최하는 「201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은 大賞의 훈격이 기존 '국무총리賞'에서 '대통령賞'으로 격상되어 시상식의 품격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방송매체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라디오 부문을 신설하였고 또한 방송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바른 방송언어상'·'방송기술상'을 신설하는 등 그 내용과 규모가 한층 확대되어 방송인의 사기진작은 물론 방송분야 대표행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201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 응모 또는 추천하려면 내년 1월 3일부터 12일까지 기간 중에 신청서와 소정의 서류를 한국전파진흥원(송파구 가락동 소재)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마감일 전까지 우편 발송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시상식 당일 행사장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시된 응모요강을 참조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이 대통령賞으로 격상된 만큼 시상의 품격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방송인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한 만큼 시상 응모작품 수가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방송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시상식(10.3.26)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방송사 대표, 국회의원, IT특보, 방송·통신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영예의 大賞에는 KBS1 「인사이트아시아 누들로드, 미라의 만찬」(기획:조인석, 연출:이욱정, 염지선)이, 공로상은 전국노래자랑의 진행자인 송해(84세)씨가 수상한 바 있다.

붙임 : 「201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응모요강 1부. 끝.